

## 알리는 말씀

1.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키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기간이었으면 합니다.
2. 새로운 처소(서울 서초구 마방로6길 37, B1층) 준비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과 일정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현재 계획은 12월 20일 이사한 후 12월 25일(주일) 성탄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3. 12월 25일(주일) 오후 5시에 '성탄음악회'가 있습니다.
4. 중보기도
  - \*후원아동
  -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5. 움오름 가족
  - \*쿠퍼아트: <마티네 콘서트> 12월14일(수) am11시, 성음아트센터
  - \*생일: 송병춘(12/8, 음 11/15)

### 다음 주일( 12/18 )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meditation연주
김영언	김재란	양희철	양재웅, 한혜리, 왕혜진

### 지난 주일( 12/4 ) 헌금통계

헌금	
주일헌금	20,000원
감사헌금	60,000원
십일조헌금	700,000원
온라인	
합계	780,000원

우리은행  
1005-003-406575  
움오름교회

창립 2015년 3월 14일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17, 3층 (양재동313-7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http://www.woomorum.or.kr)

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3주  
8권 49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움오름교회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송병춘

- \* 부름의 말씀 ..... 시 146:5-10 ..... 인도자
- \* 주님의 기도 ..... 다같이
- \* 찬송 ..... ‘오소서, 평화의 왕’ ..... 다같이

Capo 3 (Em) Gm (Em/D) Gm/F (C) Eb (B no 3rd) D(no 3rd)

Korean 1 O - so - so o - so - so, pyong-hwa eui im - gum  
 2 O - so - so o - so - so, sa - rang eui im - gum

English 1 Come now, O Prince of peace: make us one bod - y.  
 2 Come now, O God of love, make us one bod - y.

(Am) Cm (B no 3rd) D(no 3rd) (C) Eb (Em) Gm

u - ri - ga han - mom i - ru - ge ha - so - so.  
 u - ri - ga han - mom i - ru - ge ha - so - so.  
 Come, O Lord Je - sus; re - con - cile your peo - ple.  
 Come, O Lord Je - sus; re - con - cile your peo - ple.

1.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2.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서로가 귀하 여기게 하소서
3.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주님 모두가 주를 따르게 하소서

- \* 성서교독 ..... 117번 ..... 다같이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 찬송 ..... 119장 ..... 다같이

## “성탄을 다시 생각하다”

A.D. 353년, 교황 줄리우스 1세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정하였을 때, 오늘날의 성탄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832년, 찰스 폴런교수가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성탄절 트리의 촛불을 켜올 때, 오늘날의 성탄절 장식의 정교함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1832년 첫번째 성탄절 촛불점화보다 오래 전에, 성탄일을 지정하였던 353년보다 더 오래 전, 특별한 별 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을 밝혔습니다.

매해 성탄절을 다시 맞이할 때에, 잠시 멈추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얻습니다. 상업적 치장과 정교한 장식들 그리고 연휴의 흥분으로 둘러싸인 오늘날의 성탄절.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합니다.

-Minister's Manual(1994) 'Consider Again Christmas' 중에서

# 사람들은 왜 모를까?

-김용택

음미하는詩

이별은 손 끝에 있고  
 서러움은 먼데서 온다  
 강 언덕 풀잎들이 돋아나며  
 아침 햇살에 피죽이 일어선다  
 마른 풀잎들은 더 깊이 숨을 쉬고  
 아침 산그늘 속에  
 산벚꽃은 피어서 희다  
 누가 알랴 사람마다  
 누구도 닿지 않은 고독이 있다는 것을  
 돌아앉은 산들은 외롭고  
 마주 보는 산은 흰 이마가 서럽다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슬픔은 손 끝에 닿지만  
 고통은 천천히 꽃처럼 피어난다  
 저문 산 아래  
 쓸쓸히 서 있는 사람아  
 뒤로 오는 여인이 더 다정하듯이  
 그리운 것들은 다 산 뒤에 있다  
 사람들은 왜 모를까 봄이 되면  
 손에 닿지 않는 것들이 꽃이 된다는 것을

기도 ..... 김영언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우리 기도 들으소서  
 우리 마음 아시오니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의 평화를 내리소서 아메 - 니

\* 성경봉독 ... 창 20:1-18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될 니 다

말씀 ... 창세기21-'두려움과 대립절'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104장 ..... 다같이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Moderato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니  
 나 받은 귀한 선물을  
 주께 바치리 아멘

- \* 봉헌기도 ..... 인도자  
 (봉헌담당: 조경숙)
-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 \* 축도 ..... 유경호
- Meditation .....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 다같이  
 (\*바이올린: 한혜리 \*첼로: 왕혜진 \*피아노: 양재웅)
- 환영과 알림 ..... 인도자

우리 애겐 소원이 하나있네 주님 다시오 실그날까  
 지우리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마  
 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수없네 우리교회는 이땅의 희  
 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뵈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안에 예배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 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